

일본이 기억한 안용복

- 『竹島紀事』와 『竹島考』를 중심으로 -

김 병 우*

(e-mail: ulkim@dhu.ac.kr)

目 次

1. 머리말
 2. 『竹島紀事』의 안용복
 3. 『竹島考』의 안용복
 4. 맺음말
-

1. 머리말

일본의 일방적인 독도영유권 주장으로 인해 한국과 일본은 긴장과 마찰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지난 60년간 한 번도 중단된 적이 없다. 더구나 식민지와 해방이라는 양국의 상반된 입장이 당대에 일어나는 국내·외의 정치적 상황과 맞물리면서 미래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했다. 특히 최근 아베정권의 역사인식과 일부 우익 정치인들의 동향은 독도 도발의 강도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하게 만든다. 그럼에도 우리는 반세기 이상 지속되어온 ‘독도영유권’ 논쟁의 종식을 통해 새로운 한·일 관계의 정립과 미래지향적인 상생발전의 길을 도모하는 시대적 과제를 외면할 수는 없다.

독도영유권 논쟁은 역사적 사실에 대한 검증과 그것에 기초한 공통의 인식의 방향을 모색하는 것에서 출발해야만 한다. 이것은 국민적 감정이나 정치적 이해관계, 이와 연관한 민족적 가치를 배제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며, 결국 역사적 사실검증과 가치판단의 명확한 기준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안용복을 바라보는 시각의 교정과 자료의 엄밀한 검증이 필요하다.

* 대구한의대학교 교수

한국과 일본의 독도영유권 문제의 핵심은 ‘안용복’의 존재와 행위의 진실성에 있다.¹⁾ 안용복은 조선에서 태어나 조선에서 산 조선인이지만, 독도 영유권과 관련한 행적은 일본을 무대로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조선에는 그의 진술을 바탕으로 한 단편적인 기록만 존재하고, 일본에는 그가 활동한 지역별로 다양한 기록이 남아있다.²⁾ 일본에 안용복의 공적·사적 기록들이 남게 된 이유는 안용복이 평범한 어부만은 아니었다는 사실과, 안용복의 일본행이 돛토리 번과 쓰시마 번에 중차대한 영향을 미치는 일대사건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일본은 그들의 입장에서, 그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안용복의 존재와 행적을 이해하고 기록했던 것이다. 그 결과 조선의 안용복과 일본의 안용복은 전혀 다른 인물이 되었고, 한국과 일본의 연구자들은 각기 자기가 만든 안용복을 내세워 독도영유권을 주장하고 반박하기를 거듭해 왔다.

한국과 일본의 문헌을 통해 안용복의 활동과 실체를 규명하는 과정에서 안용복은 그의 신분이 노비로 이해되었다.³⁾ 안용복은 서울에 사는 오충추의 노비로 어물을 상납했으며, 오충추는 동래를 거점으로 대일무역에 종사한 역관이거나 富商大賈였다고 파악해 안용복의 실체가 구체화되었다⁴⁾. 조선에서는 능로군 출신이면서 어부로만 알려진 안용복이 일본자료인 『죽도고』의 호패를 통해 그 실상의 윤곽을 밝힌 것은 실체에 근접하는 길을 연 셈이다. 그러나 일본자료인 『죽도고』와 『죽도기사』 등의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하면 기록의 신빙성과 인물 이해가 부자연스럽다⁵⁾.

안용복의 신분과 행적은 역사적 사실과 부합되어야 한다. 동래 왜관에서 일

- 1) 일본은 외무성의 ‘다케시마 10포인트’ 5)를 통해 인용복의 진술내용이 사실과 부합하지 않고, 기록에 없는 내용이 있다는 점을 들면서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일본과 일본의 연구자들은 안용복의 존재와 행적은 인정하면서도, 그의 일본에서의 행위와 조선에서의 진술내용을 신뢰하지 않고 있어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한 돛토리 번과 쓰시마 번이 일본에 온 안용복을 후대하였다는 사실은 진실로 간주하기도 한다. 동시에 허위에 능하고 월경한 범법자에 불과한 안용복을 후대한 이유는 설명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일본의 입장과 태도가 어디에서 기인하는 것인가 하는 점을 추적하는 일은 의미가 있다.
- 2) 독도 및 안용복과 관련한 일본의 대표적 기록은 『竹島紀事』, 『竹島考』, 『控帳』, 『御用人日記』, 『竹島渡海由來記拔書控』, 『元祿九丙子年朝鮮舟着岸一卷之覚書』, 『竹島之書附』 등이 연구 자료로 많이 활용되고 있다.
- 3) 안용복 관련 연구성과는 김병우(2011), 「안용복 연구현황과 과제」, 『경주사학』34, 경주사학회 참고.
- 4) 이준구(2004), 「안용복-어부의 신분, 울릉도·독도 파수꾼」, 『영남일보』(2004.66.22일 연재) : (2005), 「17세기 말 호패·호적이 말하는 울릉도·독도 파수꾼 안용복과 박어둔」, 『조선사연구』14. 조선사연구회. 안용복과 함께 납치된 박어둔을 통해 안용복의 실체를 규명한 것은 안용복 연구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고 평가된다. 이후 안용복은 사노이며 외거노비로 이해되면서(송병기(2007, 『울릉도와 독도』(재정판), 단국대출판부) 그 실상이 좀 더 명확해졌다.
- 5) 안용복의 주인인 오충추는 실존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며, 안씨 성을 사용하고 있어 성도 없는 사노로만 이해하기 어렵다. 스스로 ‘安禪長’이라고 한 점에서 무관일수도 있어 사노라고만 한정하기도 어렵다.

어나는 교역은 商賈와 訳官사이에서도 일어났다. 이 과정에서 역관들은 자신의 물건임을 알아보지 못하도록 자신의 신분을 감추었는데, 이를 위해 서울의 사노로 가탁하기도 했다⁶⁾. 이러한 시대적 현실을 고려한다면 결국 안용복은 역관으로서 서울에 사는 오충추의 사노로 가탁하여 왜인과 사사로이 무역을 하는 潛商이 된다.⁷⁾ 이러한 연구는 『죽도고』의 호패에 의거한 안용복의 신분 이해의 한계를 적시한 것이며, 안용복의 실체와 행적 규명에 새로운 길을 열었다고 할 수 있다.

일본이 기록한 ‘호패’에 주목하여 안용복을 ‘사노 용복’으로 이해하는 것은 다시 검토되어야 한다. 더구나 일본이 기록한 『죽도고』나 『죽도기사』가 안용복의 활동에 대한 전모를 사실적으로 남긴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안용복의 신분과 행적에 대한 일본 기록의 비판적 수용을 위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⁸⁾ 일본이 기억하는 안용복을, 그것도 당대에 인식한 안용복의 용모와 신분, 행적들을 추적하는 일은 안용복의 행적과 실체를 확인하는 길이다.⁹⁾ 안용복의 존재와 인식이 결합될 때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은 무력화 될 것이며, 우리는 진정한 안용복의 상을 조명하게 될 것이다.

일본은 안용복과 마주한 당대에 장소와 시기에 따라 안용복을 이해하고, 그들의 입장에서 안용복의 용모와 행적을 기록했다. 그 결과 안용복은 한 사람임에도 그의 신분은 다양하였고, 상호간 대응도 달랐으며, 그가 차지한 위상도 달랐다. 이것은 돗토리 번의 藩士에 의해 사적영역에서 기록된 『죽도고』의 내용과 쓰시마의 명령으로 가신에 의해 작성된 『죽도기사』¹⁰⁾도 결국 쓰시마번의

6) 『속중실록』 속중 36년 3월 29일(갑오).

7) 김호동(2009), 「조선 속중조 영토분쟁의 배경과 대응에 관한 검토-안용복 활동의 새로운 검토를 위해」, 『대구사학』94, 대구사학회. : (2012), 「『竹島考』 분석」, 『독도영유권확립을 위한 연구』, 영남대 독도연구소, 51쪽. 김호동은 『속중실록』의 기록을 근거로 하여 별건역관 안신회를 안용복으로 비정하여 안용복의 실존과 실체를 분명히 하고자 했다.

8) 경상북도 독도사료연구회는 안용복 관련 국내외 자료 분석을 통해 안용복 활동의 복원과 재조명 작업을 진행하여 상당한 진척을 이루었으며, 일본자료의 번역을 통해 국내 연구자들의 안용복 관련 연구의 지평을 확장하였다. 경상북도 독도사료연구회(2010), 「2010 경상북도 독도사료연구회 연구보고서」, 경상북도 : (2012), 「2011년 경상북도 독도사료연구회 연구보고서」, 경상북도·(재)안용복재단 ; (2014), 「『안용복활동의 재조명』 학술세미나 발표문, 경상북도 독도사료연구회. 경상북도 독도사료연구회, 정영미 역(2010), 『죽도고(상)·(하)』, 경상북도 : 경상북도 사료연구회(2013). 『죽도기사』, 도서출판 지성인.

9) 최근 안용복의 행적과 관련한 일본자료의 전문이 번역되어 연구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그 대표적인 자료들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권오엽/오오니시 토시테루 편역주(2011), 『죽도기사』, 한국학술정보(주) : (2011), 죽도도해유래기발서공(상)·(하)』, 한국학술정보(주). 오오니시 토시테루 저 권정 역(2011), 『안용복과 원록각서』, 한국학술정보(주). 경상북도 사료연구회/정영미 역(2010), 『죽도고(상)·(하)』, 경상북도. 경상북도 사료연구회(2013), 『죽도기사』, 도서출판 지성인. 권혁성(2013), 『죽도고(상)·(하)』, 인문사 등이 바로 이런 자료들이다.

10) 본고는 안용복 연구의 가장 핵심적인 자료로 지적되고 있는 『竹島紀事』와 『竹島考』를 통해

입장을 고려하였기 때문에 전적으로 객관적인 기록으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¹¹⁾

이러한 이해를 전제로 일본이 기록한 안용복의 실체를 복원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다양한 신분과 용모로 기록된 안용복을 추적함으로써 기록자의 입장을 이해하고, 그 기록의 주관점을 객관화하여 안용복의 행적과 일본의 대응, 특히 돗토리 번과 쓰시마 번의 조선과 안용복에 대한 인식과 대응의 동질성과 차이점은 물론 그 변화과정을 추적하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과 이해는 안용복의 실체와 행적의 진실성을 밝혀줄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의 ‘사노 용복’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리고 기록과정에서 윤색되거나 조작된 부분들이 수면위로 떠오르면서 역사적 진실성을 회복할 것이다. 더구나 안용복의 울릉도와 일본행의 목적이 더 선명하게 부각될 것이며, 일본이 만들어 낸 안용복 像의 허구가 밝혀질 것으로 기대한다. 결과적으로 안용복의 실체에 기초한 한국과 일본의 공통의 인식의 방향을 모색하는 길을 열어 줄 것이다.

2. 『竹島紀事』의 안용복

『竹島紀事』는 1693년(숙종 19년)에 발생한 안용복 납치사건을 계기로 조선 정부와 일본의 쓰시마 번이 벌인 외교적 교섭에 대한 쓰시마 번의 가신에 의해 편찬된 공식기록이다. 안용복의 납치로 인해 양국은 울릉도 영유권에 대한 교섭을 벌였으며, 동일한 사건임에도 한국과 일본은 각각 ‘鬱陵島争界’, ‘竹島一件’으로 달리 명명했다. 이것은 하나의 역사적 사실을 각기 자국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해석하여, 자신의 주장을 증명하는 논리로 삼고 있다는 현실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竹島紀事』는 쓰시마 藩士였던 고시 쓰네에몬(越常右衛門)이 1726년 12월에 편찬했지만, 사건 당시 쓰시마 번 家老였던 오우라 리쿠에몬(大浦陸右衛門)이 집필하고, 아메노모리 호슈(雨森芳洲)가 교열했다. 그러므로 당대의 공식기록문서라는 점에서는 사료적 가치가 매우 높게 평가받고 있지만, 쓰시마 번의 가신들이 자료를 취사선택하여 기록하였다는 점에서 객관성이 떨어지고, 그 진

일본이 기록자들이 이해한 안용복의 실체에 접근하고자 한다. 『죽도기사』는 주9)의 권오엽의 번역본과 경상북도 사료연구회 번역본, 『죽도고』는 정영미의 번역본을 텍스트로 삼아 분석하였다.

11) 박지영은 『죽도기사』가 쓰시마 번의 가신들이 저술한 사료라는 점에서 내용의 신뢰성에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여 공적인 기록이기 때문에 객관성이 담보하고 있다는 인식의 변화를 주고 있다. 박지영(2014), 『안용복활동의 재조명』 학술세미나, 경상북도독도사료연구회, 7쪽 ; 10쪽.

실성에 의문이 있다. 그렇지만 조선과 쓰시마가 공식적으로 주고받은 외교적 문서가 원용되고 있어 당시 조선과 일본의 정치 외교적 상황과 사회상을 엿볼 수 있다. 그러므로 사건의 시대적 배경 이해에 많은 도움을 준다. 즉 1693년(元祿 6년)부터 1699년(숙종38, 원록12)까지의 외교관계와 울릉도에 대한 상호간의 인식의 변화를 담고 있어 안용복 사건이 조선과 쓰시마에 끼친 영향의 규모와 성격을 보여준다.

『죽도기사』는 안용복을 범을 어기면서 어로활동을 한 범죄인으로, 조선과 일본에서 외교적 분쟁을 일으킨 중죄인이라는 입장을 견지한다. 안용복이 처음 납치된 것은 1693년 4월이었다. 그는 3월(숙종 19년) 울산출신 어부 40명과 전복과 미역을 채취하기 위해 죽도(울릉도)에 들어갔다. 이들은 漁獵을 하다가 4월 7일 일본 호키(伯耆)주 요나코무라(米子村)의 오야가(大谷家) 소속 어부들과 만났다. 양국의 어부들은 죽도에서의 어업 영역과 주도권 문제로 충돌하였고, 이 과정에서 안용복과 박어둔은 납치되어 돛토리 번으로 끌려갔다. 이때 안용복과 박어둔은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았다. 이들이 돛토리 번에 연행된 것은 5월 1일 이었다.¹²⁾

안용복 일행은 오키와 이나바에서 각각 조사를 받았다. 그리고 막부의 명에 의해 5월 7일 이나바를 떠나 6월 말에 나가사키에 도착했다. 이 과정에서 안용복과 박어둔은 납치된 인물로는 이해하기 힘든 특별한 대우를 받았다. 가마를 이용한 육로이동과 총인원 90명의 호위를 받았기 때문이다.

나가사키에서도 집중적인 심문을 받았으며, 진술은 口上之書로 정리되었다. 전체적으로 보아 안용복은 이나바와 나가사키에서 동일한 내용을 구술하였고, 쓰시마 번은 안용복의 진술을 신빙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쓰시마의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안용복의 존재가 조선과 일본의 외교문제, 좁게는 일본과 조선외교의 중계자인 쓰시마 번의 이익과 어떻게 부합시킬 것인가에 있었다. 이런 점에서 쓰시마 번은 안용복의 존재와 그에 대한 인식이 매우 중요했다.

쓰시마 번이 인식한 안용복은 정확하고 일정한 것이 아니었다. 쓰시마와 조선 사이에 외교문제로 갈등을 겪는 과정에서 안용복의 존재와 그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보였다. 『竹島紀事』는 안용복을 ‘조선인’으로 지칭하면서도 한편으

12) 『죽도고』에 의하면 안용복 猛性強暴한 자로 알려져 혹시 길 가는 도중에 난폭한 행동이라도 하면 큰일이다 싶어 부녀자와 유아가 길에 나와서 구경하는 것을 금지할 정도였다(정영미 역(2010), 『죽도고(상)·(하)』 227쪽). 이렇게 인식된 안용복이 더구나 일본말로 잘 하면서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고 순순히 납치에 응한 것은 그의 일본행에 대한 목적을 은폐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의문을 가지면서 『죽도기사』가 기록한 안용복의 실체를 추적해 본다. 안용복이 울릉도에서 일본인을 만난 것은 4월 17일이며, 오키에 도착한 것은 4월 22일이다. 그리고 이들은 4월 28일 오키 섬을 출발하여 5월 1일 돛토리에 도착했다.

로는 ‘어민’, ‘일본어를 할 줄 모르는 자’, ‘각별한 존재’ 등으로 표현하고 기록했다. 안용복의 죽도(울릉도) 도해의 목적에 대해서는 ‘전복과 미역’을 채취하기 위한 것이라면서도, ‘고기잡이’, ‘개인적 돈벌이’ 등으로 이해하기도 하고, 결국에는 ‘밀무역’, ‘商壳’, ‘소송인’ 등으로 구체화하는 변화를 보이고 있다.

쓰시마 번의 안용복 이해와 인식의 변화는 죽도(울릉도)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궤를 같이 했다. 죽도를 일본의 속도라고 인식·주장하다가 조선의 영토로 귀결시키려는가 하면, 일본인의 도해금지 이유에 대해서는 ‘잠통과 사시의 폐단’ 때문이라고 분명히 하기도 했다. 안용복이 죽도로 건너간 것은 단순한 어업만이 아니라는 사실은 분명했다. 쓰시마가 안용복을 밀무역, ‘商壳’ 등으로 기록하고 있는 점에서 죽도(울릉도)를 밀무역의 근거지로 확신하고 있었음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일본과 쓰시마의 인식과 관점의 변화를 『竹島紀事』의 기록을 중심으로 면밀하게 분석하면 ‘울릉도쟁계’의 핵심과 동시에 안용복의 실존적 행적과 인물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죽도기사』를 통해 알 수 있는 안용복의 용모와 인상, 출생지는 다음의 ‘조선인 두 사람의 구두진술’에서 확인할 수 있다.¹³⁾

- 조선국 경상도에 있는 동래군 부산포의 안 요쿠호키, 울산의 박 도라히라는 자입니다. 우리는 울산이라는 곳에서 죽도라는 곳에 전복과 미역을 따기 위해 3월 11일 출선하였으며, 같은 달... 일본인이 4월 17일에 우리가 있던 곳에 나타나서...늘 죽도에 전복과 미역이 많다는 것을 들은 탓에 배 한 척에 10명이 승선하여...10명 중 9명은 울산사람이고 1명은 부산포 사람입니다...
- 우리가 탄 배와 같이 간 배, 도합 세 척 중에서 한 척은 전라도 배라고 들었습니다. 그 배에는 17명이 타고 있었으며, 또 한 척에는 15명이 타고 있었는데, 경상도에 있는 加徳이라는 곳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은 일본 사람들에게 붙잡혀 왔기 때문에 그들이 바로 조선으로 돌아갔는지....
- ‘박 도라해는 34세, 안 요쿠호키는 40세가 되었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나바에서는 나이를 43세라고 말씀드렸다고 합니다. 이는 ‘역시 언어가 확실하게 통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못 알아들었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했습니다....

13) 경상북도 독도사료연구회 편(2013), 『죽도기사1』, 23-24쪽.

이나바에서의 안용복과 박어둔의 진술은 나가사키 봉행소로부터 신빙성을 인정받았다. 그런데 나가사키 봉행의 세츠노카미는 루스이(留守居) 하마다 겐배에게 심문한 초안을 보고 이나바에서 작성한 구술서와 같게 하도록 지시했다. 이것은 도토리 번이 막부에 보고한 사실과의 차별성을 없애기 위한 것이었다. 한편으로는 조선과의 외교를 고려할 때 도토리 번, 막부, 쓰시마가 안용복에 대한 동일한 인식을 공유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한 결과였을 것이다. 그러므로 안용복의 구술서는 문구가 수정되고 정서되었던 것이다. 이 과정에서 쓰시마 번과 가신들의 입장이 개입되면서 안용복의 행적이 일정하게 윤색되었을 것이다.

경상도의 안용복과 박어둔이 ‘전복과 미역’을 따기 위해 죽도(울릉도)에 갔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런데 이들은 단순히 전복과 미역만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었다. 이들의 규모가 단순 조업을 넘는 대규모 선단일 뿐만 아니라 지역적 연합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17세기 조선에서 지역적 연합 그것도 경상도와 전라도라는 광역권에서 어민의 연합적인 어채행위는 드문 일로 거의 없었다고 해도 틀림이 없다. 경상도가덕(15명), 전라도(17명), 울산(9명, 최초 10명)의 지역적 연합과 42명이라는 어부의 숫자로 보아 단순한 고기잡이배 이상의 목적과 성격이 있었음이 분명해 보인다.¹⁴⁾ 이런 점에서 안용복은 고기만 잡는 단순한 어부가 아니라 거대한 선단을 조직하고 운영하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인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¹⁵⁾

그렇기 때문에 『죽도기사』는 안용복과 박어둔을 어민의 수준을 넘어 각별한 존재로 인식하고 예우했다.¹⁶⁾ ‘분명히 지금쯤 에도에서 서한이 도착했을 것이라고 추측됩니다. 이번 조선인은 각별한 존재입니다. 항해 중의 경호를 위해 또 다시 사자를 파견 합니다’ 라는 서신에서 각별한 존재로 기술한 점을 주목해야 한다. 하마다 겐배에게 보낸 서장의 요약에는 ‘죽도로 건너온 조선인 건은 평소의 표류민과는 다르다’면서 나가사키 봉행소로부터 우리측이(쓰시마) 인계 받아 조선인의 죽도 도해를 금지하기 위한 협상에 사용할 ‘불모(人質)’로 이해하기도 했다.¹⁷⁾ 안용복은 단순한 표류민이 아니어서 생활보조를 지원받지

14) 전라도 어민의 경우 안용복이 2차로 일본에 소송하기 위해 갈 때 동행한 승려 뇌헌과 밀접한 연관이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 이 문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이며, 반드시 밝혀져야 할 중요한 문제의 하나라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15) 안용복은 박어둔이나 뇌헌 등과는 달리 상업적 이익을 꿈꾸고 배 13척에 최소 135-140명의 선단을 주도적으로 꾸리는 존재라고 할 수 있다며 한일 양국 사이에서 울릉도의 이권을 장악하는 富商大賈를 꿈꾸는 역관출신의 잠상이었을 것이다(김호동(2009), 「조선 숙종조 영토분쟁의 배경과 대응에 관한 검토-안용복 활동의 새로운 검토를 위해」, 『대구사학』94, 대구사학회, 84쪽).

16) 경상북도 독도사료연구회 편(2013), 『죽도기사1』, 29-30쪽.

못했다. 어부로 표류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 볼모였기 때문에 정치적 흥정의 가치와 더불어 그의 위상이 높아진 셈이다.

안용복은 평범한 어민에서 ‘각별한 존재’, ‘볼모(人質)로 그 존재적 가치와 위상이 변화하였다. 쓰시마는 안용복을 볼모로 내세워 조선과의 외교교섭 즉 죽도의 일본 속지를 요구하고 관철시키기 위한 전략을 세웠다. 쓰시마는 안용복의 실체를 어느 정도 파악했기 때문에 어부에서 인질로 이해한 것이다. 이런 점에서 안용복은 私奴¹⁸⁾나 단순 어민 이상의 인물이었을 것이 분명한 것이다. 이점을 안용복의 나이 진술을 근거로 다시 살펴보자.

口上之書를 보면 안용복 40세, 박어둔 34세로 진술·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안용복은 왜 이나바에서는 43세라고 진술하였을까? 나가사키 봉행소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질책하거나 진위 여부를 파악하지 않았다. 『죽도기사』는 “역시 언어가 확실하게 통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못 알아들었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하면서 묵인하고 용인하는 입장이었다. 다른 사실은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것에 근거하여 기록하면서도 나이만은 왜 언어소통의 문제로 치부했을까.

중요한 사실은 안용복이 일본어를 안다는 점이다.¹⁹⁾ 그런데 언어 소통의 문제로 넘어가는 것은 안용복과 쓰시마의 이해가 일치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안용복은 이나바에서 자신의 실체와 죽도로 건너간 목적을 감추어야만 했다. 자신의 신분을 감추기 위해 위장된 호패²⁰⁾를 사용하였고, 나이 진술로 혼돈을 주었다. 그러나 쓰시마는 이미 안용복의 실체를 짐작하였고, 그것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나이를 속인 일도 알아냈지만, 그 전모를 밝히지는 않았다.

안용복은 자신의 실체를 감추기 위한 전략적 선택을 하였고, 그러한 사실을 밝힐 수 없는 쓰시마의 입장을 안용복이 죽도로 건너간 목적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통해 살펴보자. 안용복은 1693년(癸酉, 元祿6) 9월 4일 오메쓰케(大目付) 가도노 구로자에몬(門野九郎左衛門)과의 심문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했다. ‘조선인 구두진술서(朝鮮人口書)’의 내용을 보면 일반적 사실 외 특이한 점으로 3척의 배 선장과 울산사람 이름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다²¹⁾는 점이다. 전라도 배는 순천의 배였다는 점과 가지고 간 식량(쌀10포 소금3포) 등이

17) 쓰시마가 왜 협상의 ‘볼모’로, 어부에서 정치적 볼모로 전환하였는가 하는 문제를 밝힐 필요가 있다.

18) 안용복의 신분은 ‘사노’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19) 『성호사설』과 『춘관지』등 한국 측 기록은 안용복이 일본어를 잘 하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일본의 기록에서는 역인, 통역인 등으로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20) 이 문제는 『죽도고』 문제에서 자세하게 언급할 것이다.

21) 경상북도 독도사료연구회 편(2013), 『죽도기사1』 35쪽. 선장 기무요치야키, 긴바타이, 긴텐토이, 울산사람은 세고치, 이하니, 기무도구소이, 야구자춘이 이들이다.

진술되고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죽도에 간 목적에서 우선적으로 찾아야 한다.²²⁾

- 우리들이 그 섬으로 건너간 이유는 전복과 미역이 많이 있다고 들어 돈벌이를 위해 건너간 것입니다. 같이 간 배도 그렇습니다. 달리 상거래(商売之心)를 하려는 마음은 절대로 없었습니다.
- 그 섬에서 일본인과 상거래(日本人與商売會)는 절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같이 간 배는 어떤지 알지 못합니다.
- 우리들이 그 섬에 건너간 일은 몰래 간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작년에도 울산 사람 20명 정도가 건너갔습니다. 물론 조정의 명령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자신들의 돈벌이를 위해 건너 갔습니다.

안용복의 진술에서 ‘미역과 전복’이 전면에 등장하지만, 갑자기 상거래가 언급되고, 그것도 누차 강조되고 있는 점을 눈여겨보아야 한다. 특히 일본인과의 상거래 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부정의 진술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일차적으로 안용복은 상인이며 울릉도가 바로 상거래 장소였다는 사실을 내포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죽도에서 조선인과 일본인의 상거래가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이 바로 숨기고 싶은 사실이었다. 쓰시마는 일차적으로 안용복을 일종의 상인으로 이해한 이유이기도 하다.

안용복이 숨기고 싶은 진실은 바로 이것이다. 안용복 자신이 바로 그 상거래의 중심인물이었기 때문이다. 돛토리 번은 몰랐을 수도 있지만, 쓰시마는 이러한 울릉도 중심의 잠상행위와 규모를 분명히 알고 있었다. ‘일본인과의 상거래는 절대로 없었다’, ‘같이 간 배는 어떤지 알지 못 한다’고 주장한 것은 상거래 행위를 간접적으로 인정한 것이다.²³⁾ 쓰시마가 막부에 숨기고 싶은 사실은 울릉도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던 바로 잠상행위였다.

안용복이 오야 가문에 의해 납치되었을 때 돛토리 번과 쓰시마는 서로 다르게 안용복을 이해한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죽도고』와 『죽도기사』가 보여주는 안용복 실체 이해의 첫 번째 차이점일 것이다. 그러나 『죽도기사』의 안용복은 그가 재차 일본에 건너오면서 다시 변신하게 된다. 갑자기 안용복의 지

22) 경상북도 독도사료연구회 편(2013), 『죽도기사1』, 36-37쪽.

23) 쓰시마는 죽도를 자신의 영역으로 편입하는 것이 당면한 외교의 핵심이었다. 그래서 죽도가 조선인과 일본인의 잠상의 본거지로 알려지는 것을 꺼렸다. 그것은 조선과 일본의 외교정책과 반하는 것이며, 쓰시마가 주도한 대조선 외교의 주도권을 잃을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밀무역에 대한 정보를 표출시킬 필요가 없으며, 안용복은 의도적으로 상거래를 강조하였지만, 기록자의 입장에서 부분적으로 누락할 수 밖에 없었다. 안용복이 일본말을 구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실 자체를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위와 위상은 격상되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부정적 인물로 기술되어 상반된 입장을 보여준다.

안용복은 숙종 19년에 납치되었을 때는 쓰시마에 의해 동래로 귀환하였고, 월경죄로 인해 2년형을 받았다. 그런데 곧바로 1696년(숙종 22년, 원록9년) 6월 쓰시마의 비리를 폭로하고 자신에 대한 부당한 대우 문제로 소송을 하기 위해 이나바로 돌아왔다. 쓰시마는 이제 과거의 안용복을 잊어야 했다. 조선과의 외교적 문제를 포함하여 막부의 존재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쓰시마 번 가신들의 입장에서는 안용복을 부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조선에서 이루어진 안용복의 진술 내용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안용복이 진술한 쓰시마의 입장과 태도는 외교문제로도 비화될 수 있으며, 울릉도 속지화와 밀거래 내역이 노출될 수도 있는 문제이다. 에도와 쓰시마, 조선과 쓰시마, 에도와 조선의 관계가 새롭게 편재될 수도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 때문이다.²⁴⁾ 무엇보다도 안용복의 진술은 쓰시마에서 일어난 행위들이고, 쓰시마가 그 당사자였기 때문이다. 실제적으로 안용복의 귀환과 아울러 외교문서의 내용이 달라지기 시작했던 것이다.²⁵⁾ 쓰시마는 갑술년 외교문서가 안용복의 일본 경험을 토대로 작성되었던 점에 당혹했다.

『竹島紀事』는 조선에서의 안용복의 진술을 부정했다. 안용복이 조선에 귀환하여 진술한 ‘죽도에서는 밧줄을 묶어 죄인처럼 에도로 보냈다,’ ‘에도에서는 이들을 처벌하라고 지시했다,’ ‘정중하게 대접하며 나가사키까지 보냈다,’ ‘가마에 태워주고 좌우에서 부채질해주고 혹은 금은을 주고,’ ‘쓰시마의 관리들이 인도받은 후 또 다시 죄인처럼 대했다,’ ‘조선인의 죽도도해 금지는 에도의 뜻이 아니라 쓰시마의 생각이다’ 등의 진술에 대한 쓰시마의 대응으로서는 당연한 귀결일 것이다.

쓰시마가 무엇보다도 두려워 한 것은 에도 막부의 명령에 빙자한 쓰시마의 의도가 드러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쓰시마가 막부와 상관없이 죽도를 일본의 속도로 정하려했던 사실이다. 죽도의 속도화 전략을 은폐하기 위해 쓰시마는 안용복이 이나바성을 에도로 착각한 것에 주안점을 두었다. 안용복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조장은 당연한 것이다. 쓰시마의 적극적인 변론은 이러한 배경

24) 쓰시마 번은 ‘울릉도쟁계’ 이후 울릉도를 자국의 영토로 편입하여 안용복과 같은 조선의 무역상들이 조선과 일본에서 새로운 교역의 루트를 개발하는 것을 원천 봉쇄하려는 의도가 있었다. 그래서 쓰시마 번은 안용복의 처리과정에서 상당한 무리수를 두었다. 이와 같은 논지는 김호동(2009), 『조선 숙종조 영토분쟁의 배경과 대응에 관한 검토-안용복 활동의 새로운 검토를 위해』, 『대구사학』 94, 대구사학회 및 (2010), 『“안용복”관련 자료 분석을 통한 안용복 활동의 복원』, 『2010 경상북도 독도사료연구회 연구보고서』, 경상북도·(재)안용복재단, 51쪽 참고.

25) 경상북도 독도사료연구회 편(2013), 『죽도기사2』, 25-26쪽.

에서 이루어졌다.²⁶⁾

쓰시마는 나가사키로 가는 도중에 가마를 태워주고 금은을 주고 부채질을 한 것은 일본의 국풍이며 중요한 죄인일 경우에 그렇게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동시에 금·은을 빼앗은 것은 의도한 일로 안용복을 회유하기 위한 수단이었다고 변명했다.²⁷⁾ 결국 쓰시마는 안용복을 죄인으로 둔갑시켜야 했고, 이러한 사실을 막부와 돛토리 번 등에게 각인시켰다. 그 이면에는 죽도 중심의 상업적 거래 사실과 죽도를 속도로 편입하려는 계략을 은폐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을 전적으로 은폐할 수는 없었다.²⁸⁾ 이미 밀무역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분고노카미와 쓰시마 사자 아오에몬, 요시자에몬 등이 ‘죽도일건’을 논의하면서 밀무역 문제를 언급했다. 이들이 공통적으로 의견을 교환한 내용은

- 1) ‘죽도일건’은 ‘...오랜 세월 일본의 속도로 되었으므로...금지시켜야 한다는 것은 지금까지처럼 쌍방에서 건너가서는 쉬여서 이후에 재앙이 생길 것이고, 특히 밀무역(御法度之商売) 등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2) 이전에도 나가사키에서 죠닌들이 발선이라는 일을 행해 금지된 무기, 금·은 등을 몰래 조선으로 가지고 가서 상매를 했기 때문에 이전에도 문서로 제출한대로 간분(寬文)년 간에 조선에도 그것을 분명히 전하고 이쪽의 자들을 처벌했다.
- 3) 죽도에서 일본인과 상매하는 일도 있다고 조선국에 소문이 있는데 이것을 생각해보면 볼모로 잡아 두었던 조선인 중에 일본말을 하는 자가 연이어서 건너갔다고 했다. 이 소문대로 일본인과 상매를 하기 위해 연이어서 건너간 것인지 의심스럽다.
- 4) 구술각서에는 ‘죽도에 일본인이 지금까지처럼 도해하고 조선인도 제멋대로 건너가면 어쨌든 쌍방의 사람들이 쉬이어서 쟁론이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26) 경상북도 독도사료연구회 편(2013), 『죽도기사2』, 34쪽.

27) 안용복이 도중에서 제멋대로 말하고 오늘은 가지 않겠다고 거칠게 말해서 경호하는 일본인이 곤란해져 금은을 주고 여러 가지 뇌물을 주면 합의했다. 어쨌든 중요한 죄인이기 때문에 빨라 도착하고 싶어서 어민들의 마음에 들도록 해서 겨우 보냈다고 한다면서 수치스러운 일을 한 안용복과 조선을 위해 금은을 빼앗고 경호했던 일본인에게 돌려주고 예에서 어긋난 일을 바로잡는 것이라고 한다. 결국 안용복을 파렴치범으로 몰아가면서 그의 진술의 신빙성을 무너뜨리는 기록자의 입장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여기서 간과할 수 없는 점은 안용복의 일본 납치과정에서 금은이 등장한다는 것이며, 일본 경호원이 안용복을 회유하기 위해 금은을 소지하고 다닌다는 것은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결국 금과 은은 무역에서 중요한 결제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었던 시대적 환경을 생각하면 상업적 거래나 무역과 관련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고 이해할 수 있다.

28) 경상북도 독도사료연구회 편(2013), 『죽도기사2』, 71쪽. 안용복이 소송하러 일본으로 건너가기 전인 1695년 12월의 일이다.

특히 불법 상매 등을 해서 재난도 생길 텐데 어떻게 합니다.²⁹⁾

그런데 1696년(병자, 원록9) 정월 28일 지금까지의 ‘울릉도쟁계’ 즉 ‘죽도일건’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여 12첩부와 구술각서로 남겼다. 그런데 그 내용에는 상매나 밀무역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하지 않았다.³⁰⁾ 이것은 『죽도기사』를 작성한 번의 가신들이 의도적으로 은폐한 결과였다.

이런 점으로 보아 쓰시마는 안용복을 전복과 미역을 채취하는 어민보다는 상매 즉 밀무역을 한 인물로 이해한 것이 분명하다. 그런데 『죽도기사』는 갑자기 안용복을 일본말을 할 줄 모르는 인물로 둔갑시켰다. 1696년 6월 23일 에도에서 로주 오쿠보 가가노카미(大久保加賀守樣)가 루스이를 불러 말하면서³¹⁾

“조선인이 오키 지방으로 건너와서 大官에게 말한 것은 ‘이나바에 소송할 것이 있습니다.’라고 해서 이나바로 갔지만 전혀 말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통사를 에도, 오사카에 불러두었다면 호키노카미님의 가신 쪽에 상의해서 서둘러 이나바로 보내도록 했습니다. 조선인이 말이 통하지 않았는데, 지로님에게는 통사의 일은 계속해 왔던 일입니다. 자세한 것은...대체로 이나바에 조선인이 오면 나가사키 봉행소로 보내고 저쪽에서 모든 일을 보고하도록 선대에 지시해 두었으므로 이번에도 위와 같이 이나바에서 지시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평소의 표류인과는 달랐기 때문에 통사의 일을 지시하신 것입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안용복은 왜 일본어를 모른다고 에도에서는 인식했을까? 그것은 쓰시마가 일본어를 모르는 인물로 보고했기 때문이다. 안용복이 일본어를 하게 되면 외교의 가교역할을 하던 쓰시마의 역할 축소와 자신들의 의도가 드러날 수 있다는 점, 죽도의 상행위 자체에 대한 은폐사실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³²⁾

그리고 이나바는 왜 지시를 수용하지 않았을까 하는 점이 주목된다. 이것은 안용복의 지위나 입장이 달라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안용복이 단순한 표류인이 아니라 소송인의 자격으로 건너왔기 때문이다. 3년 전 전복과 미역을 따던 안

29) 경상북도 독도사료연구회 편(2013), 『죽도기사2』, 71쪽.

30) 경상북도 독도사료연구회 편(2013), 『죽도기사2』, 82-85쪽.

31) 경상북도 독도사료연구회 편(2013), 『죽도기사2』, 99쪽.

32) 경상북도 독도사료연구회 편(2013), 『죽도기사2』, 100쪽. ‘11명 중 몇해 전에 왔던 조선인 안히차쿠가 모든 일에 대해 잘 알고 있었고, 대강 일본어를 할 수 있었습니다’라고 하여 안용복은 분명 일본어를 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말이 통하지 않았다고 기록한 것은 거짓이거나 착오를 가장한 은폐이다.

용복이 아니었다. 변화된 모습은 물론이고 수행원들이 변화된 신분과 지위를 말해주었다.³³⁾

안용복은 이제 조선이라는 국가를 배경으로 하는 공적 인물의 성격을 띠게 되었다. 이나바와 막부가 쓰시마에 안용복 일행을 위해 통사를 요구한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기인한다. 이나바에서의 안용복의 지위는 일본에 온 목적과 연계되면서 달라지기 시작한 것이다. 이나바 번은 이제 굳이 안용복을 쓰시마로 보낼 필요가 없었다. 이번 기회를 이용하여 죽도의 어업권 확보가 가능할 수 있다고 판단했고, 돗토리 번의 조선의 새로운 관계설정은 쓰시마와의 경쟁에서 비롯된 것이다.

막부도 안용복을 공식적인 인물로 판단했다. 국가간의 외교 교섭의 전례로 보아 통사가 필요했고, 그래서 나가사키로 통사를 보낼 것을 지시했다. 물론 막부의 경우도 새로운 조선관계 개선을 모색했을 수도 있다. 돗토리 번의 오야와 무라야마 가문의 조공 즉 전복과 미역 등을 고려한 것일 수도 있지만 이것은 분명한 것은 아니다. 다만 돗토리의 오야와 무라야마 가문의 죽도도해 면허와 어업 독점권을 위한 정치적 로비는 분명히 존재했다.

그런데 안용복은 조선과 일본의 공식루트인 대마도-부산의 길을 버리고, 죽도를 거쳐 양양으로 귀환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물론 안용복의 귀환은 조선과 일본의 묵인 하에 이루어진 것은 분명하다. 이것은 새로운 외교·무역노선의 개발보다는, 현실적으로 죽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잠상의 실체를 이해한 것은 아닐까? ³⁴⁾

에도가 쓰시마의 상황을 정확하게 보고 받은 것은 1696년 7월 10일이었다. 막부는 쓰시마가 통사 2명과 사무라이 1명, 서기 1명을 파견한다는 사실을 알았으나, 쓰시마가 홀로 담당해온 양국 통교의 전통을 깰 수는 없었다. 공식적으로 쓰시마에 통보 없이 다른 지방에서 송사를 하고, 또 송사를 받아들이는 것은 도리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막부의 입장에서는 어느 것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였고, 결국 인슈(因州)로 돌려 보내거나 아니면 나가사키로 보내 통상적인 표류민 취급방법에 따라 처리할 수 밖에 없었다.³⁵⁾ 범물을 어기고 다른

33) 한편 안용복의 실체를 ‘비장’으로 이해하고, 『죽도기사』의 ‘한비차구(안비장)’, ‘안비찬(안비장)을 동일인물로 파악해야 한다는 설득력 있는 연구가 있다. 이들이 동일인물이라면 『죽도기사』 등 일본자료가 말하듯이 안용복이 단순하게 몰래 울릉도로 어로행위를 하기 위해 갔다가 일본으로 납치된 것이 아니라, 상부의 지시로 울릉도의 현황을 조사하기 위해 파견되었다가 일본으로 끌려간 것이 된다. 박지영(2014), 『『죽도기사』에서 새롭게 발견된 안용복의 활동사항』, 『『안용복 활동의 재조명』 학술세미나』, 경상북도 독도사료연구회, 7-8쪽 참고 : (2013) 『죽도기사1』, 20-21쪽 : (2013), 『죽도기사2』, 102쪽.

34) 경상북도 독도사료연구회 편(2013), 『죽도기사2』, 99쪽.

35) 경상북도 독도사료연구회 편(2013), 『죽도기사2』, 122쪽.

지방에 건너와 직접 송사를 한 것도 꽤 많았다. 공식적으로 조선의 예조가 법식을 갖추어 쓰시마로 전달하는 것이 외교적 관례였기 때문이다. 또 막부는 천한 어민이 직접 송사를 제기하는 것 자체가 막부를 경시하는 행위로 여겼을 것이다.

쓰시마의 입장에서는 안용복을 송사 없이 인슈에서 바로 돌려보내는 것이 최선이였다. 그러므로 에도의 서한이 도착하기 전에 통사들이 대답하는 것을 삼가 하게 하였고, 여전히 쓰시마가 주선하는 전통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 했다. 송사 내용이 공표되는 것을 막는 효과를 노린 것도 사실일 것이다.

결국 이들은 쓰시마 외 다른 지방이 송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국법임을 내세워 송사내용을 듣지 않고 돌려보내기로 결정했다. 문제는 이것이 쇼군의 지시인가. 형부대보가 스스로의 판단으로 처리할 것인가가 문제였다. 이러한 외국인의 도래에 대한 쇼군의 생각도 염려되기는 마찬가지였다. 안용복 일행은 1696년 8월 6일 송사를 제기했던 이나바 항구를 떠났다. 그것은 에도의 오쿠보 가가노카미의 지시에 의한 것이다. 이나바에 파견된 보졸 비각은 8월 14일 에도로 돌아가 보고 했으나, 그가 출항의 모습을 직접 본 것은 아니었다. 그리고 이나바로 파견된 사자 스즈키 곤베, 아비루 소베, 통사 등은 안용복이 떠난 열흘 뒤인 8월 18일 도착했다. 그러므로 안용복 일행과 일본의 공식적인 담화는 벌어지지 않았다.³⁶⁾ 그러면서도 울릉도를 침범한 일본 어부 15명을 적발해 처벌하였다는 사실과 울릉·자산 양도가 조선의 지계임을 확인해 주면서 귀국을 설득하였고 결과적으로 안용복은 외교적 성과를 거두었다.³⁷⁾

실제로 에도 막부가 죽도도해 금지령을 내린 것은 1696년 1월이였다. 그러나 그 금지령이 뜻토리 번에 전달된 것은 1698년 8월의 일이었기 위의 일들이 벌어진 것이다. 일본이 이때 내린 일본인의 죽도도해 금지령은 조선영토에 대한 인정은 물론이고 내적으로는 潛通과 私市の 폐단이 발생할 것에 대한 염려라는 점을 강조했다. 막부는 영구히 일본 사람들이 죽도에 가서 고기잡이 하는 것을 불허하는 명령을 내릴 수 밖에 없었다.³⁸⁾

쓰시마가 죽도를 의도적으로 편입하려 하였다는 사실은 이미 『죽도기사』를 편찬한 고시 쓰네에몬 가쓰야키도 인정하고 있다. 그는 마지막에 ‘그 땅을 우리 소유로 하기 위해 욕심을 부려 진정 성신의 의를 잃은 것처럼 되었다고 말하는 자가 있다’고 하여 이러한 쓰시마의 입장을 간접적으로 남겼다. ‘울릉도쟁

36) 『죽도기사』가 안용복의 귀국 과정을 자세하게 기록하지 않은 것은 쓰시마 영역 밖의 일이라는 점이 일차적인 이유이지만, 이들의 관심사는 조선과 통교의 핵심 위치를 고수하는데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들은 부산 동래 왜관의 동향을 주목하고 집중적인 기록을 남긴 것이다. 이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안용복의 존재는 중요하지 않으며, 조선과 일본과의 공식외교의 임무를 유지하는 것에 있었다. 이 과정에서 죽도의 속지화 목적은 일정하게 은폐할 수 있었다.

37) 경상북도(2012), 『독도를 지켜온 사람들』, 경상북도, 67쪽.

38) 경상북도 독도사료연구회 편(2013), 『죽도기사2』, 158-162쪽.

계'가 사실 1693년에 발생하였지만, 1699년 10월에 이르기까지 지루한 영유권 교섭이 지속되었던 것은 바로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 이었다.³⁹⁾

3. 『竹島考』의 안용복

『죽도고』는 돗토리번(鳥取藩) 藩士 오카지마 마사요시(岡嶋正義)가 돗토리 번의 다케시마에 관한 기록을 상권과 하권으로 정리하여 1828년에 편찬한 것이다. 오카지마는 일본의 영토였던 죽도가 안용복의 도일문제로 인해 조선의 영토로 편입되었고, 국력이 커질 때 반드시 다시 되찾아야 한다는 자신의 입장을 정리했다. 그러므로 일본인의 입장에서 사료를 취사선택한 매우 주관적인 기록이라고 할 수 있다.

『죽도고』는 안용복의 일본행적과 관련 인물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 그 실체를 밝히는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기도 한다. 그 중 단연히 돋보이는 기록은 안용복의 ‘호패’이다. 그런데 『죽도고』가 인식하고 기록한 안용복은 『죽도 기사』와 마찬가지로 시기적으로 인식의 변화를 보이는 공통점이 있다. 『죽도고』가 더 부정적인 인물로 묘사하고 있어 주목된다.

『죽도고』가 기록한 안용복은 다양하다. ‘訳人’에서 시작하여 ‘異客’, ‘異國人’, ‘朝鮮人’ ‘安同知’, ‘訳者’, ‘通使’. ‘三品堂上官’ ‘朝鬱兩島監稅將’ 등으로 지칭하고 기록했다. 단순한 조선인이나 이국인에서 통역과 통사를 거쳐 결국 당상관, 감세장 등 공식 관인으로 변모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므로 돗토리 번의 안용복은 고정된 인물이 아니라 사건에 따라, 시기에 따라, 기록자의 입장에 따라 변화하고 있다. 다만 가장 기본적인 인식은 어부가 아니라 통역인으로서의 안용복이라는 점이다.

오카지마는 안용복을 ‘총설’에서 통역인(訳人)으로 기록했다. 그런데 안용복과 박어둔은 어로를 목적으로 죽도에 도해했다고 하면서도, 안용복을 통역인으로 인식했다는 점을 주목해 보자. 우선 안용복이 납치되는 과정에 대한 기록을 보면⁴⁰⁾

... 겐로쿠때(1688-1704)에 이르러 조선국에서 많은 어선이 도해하여 어로를 하기 시작했다. 이에 무라카와 선원들이 그 섬의 유래에 대해 알아듣게끔 일

39) 이러한 외교교섭의 장기화는 일본 막부와 쓰시마의 조선의 국풍과 정부의 인식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이 점도 후일 밝혀져야 할 중요한 문제의 하나이다.

40) 정영미 역(2010), 『죽도고(상)·(하)』, 21쪽.

러주고 심히 그들을 꾸짖어 다시 오지 못하게 하였는데도 알아 들은 기색 없이 그 다음해에도 여전히 조선배가 와서 우리 일을 방해하였다. 그런던 중, 오야의 선원들이 화가 나서 통역인 안평사와 종자인 토라해라는 두 사람의 조선인 등을 떠밀어 우리배로 데리고 와서 급히 귀향하고, 그때의 조선인 도해자(異客)들의 난폭한 행동에 대해 막부에 말씀을 올리고 판결을 기다렸더니...

안용복을 어부가 아니고 통역인으로 기록한 것은 안용복이 일본말을 할 줄 아는 것을 강조하려는 의도의 결과였다. 그런데 오카지마는 『죽도고』에서 안용복을 납치한 사실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기록하지 않으면서도 안용복이 난폭한 인물이라는 점은 상대적으로 강조했고 이러한 사실을 막부에 보고했다. 이것은 안용복의 납치를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그리고 박어둔을 종자로 기록한 것은 안용복의 위상이 남다르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한 대목이다. 후술하게 되는 호패에 의하면 안용복은 사노인 반면 박어둔을 평민으로 기록하고 있다. 아마도 오카지마는 ‘충설’에서 안용복으로 인해 죽도를 빼앗겼다는 사실을 강조하여 그를 公賊으로 만들었으나, 결국 안용복의 존재를 온전히 부정하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이해된다.

일반적으로 고기 잡는 배는 통역을 대동하지 않는다. 이러한 사실은 간분 때 표류한 일본인과 조선인들의 구성원 면면을 살펴 볼 때 확인할 수 있다.⁴¹⁾

간분(寬文)때(1661-1673) 오야의 배가 조선국으로 표류하였을 때, 일본으로 송환된 21명의 선원들의 나이를 기록한 것을 보면 30세 이상된 자가 과반수를 넘는다. 또, 최근 우리 영해로 표류해 온 朝鮮人 12명 중에도 30세 이하인 자는 최오복이라는 자 단 한명 뿐이었다. 가장 연장자는 김삼이라는 자였다고 한다. 60여세였다. 그래도 崎陽으로 송환될 때 까지 건강상태가 매우 좋았다고 한다.

고 한 기록을 통해 일본과 조선인 모두 고기잡이를 하면서 통역을 대동하지 않는다는⁴²⁾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죽도를 중심으로 한 어업활동에서 외국인

41) 정영미 역(2010), 『죽도고(상)·(하)』, 77-79쪽.

42) 이러한 사실은 표류왜인들의 경우도 동일하다. 죽도고 191쪽 참고. 표류왜인의 명단을 보면 통역은 없다. 이때 표류왜인은 우두머리(頭倭) 1명과 수하(從倭) 왜인 21명, 총 22명이었다. 표류자 명단에서 철저히 직명을 적고 있다. 伯耆國 上乘 / 船頭 / 鉄炮打 / 鍛冶 등이 바로 그것이다. 돛토리 번의 경우 철저히 어업을 한 사실만을 강조하고 있다. 물론 이들은 잠상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들이 어업이 주 목적이었다는 사실은 이들이 장기에서 몰 수 당한 짐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오야의 배가 간분 6년(1666)에 울산으로 표류했을 때를 보면 꼬지 전복 60줄, 강치 가죽 350장, 강지 기름 70통, 재목 9구루(떡갈나무, 추백나무 등) 등으로 어업과 목재 채취가 주업임을 알 수 있다(정영미 역(2010), 『죽도고(상)·(하)』, 경상북도사료연구회편, 177쪽).

과 통역할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선원들의 나이와 건강 상태 등만이 기록되었다. 그리고 단순히 조선인으로만 기록하고 역할이나 직명 등은 표기하지 않았다.

그런데 안용복은 유독 통역(訳人)으로 적시한 것은 단순한 어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강조한 것이다. 이러한 점은 『죽도고』의 편찬자인 오카지마가 철저하게 돛토리번의 어업과 영역과 관련된 일만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도 이해하기 어렵다. 더구나 오카지마는 과거 오야와 무라야만 가문의 영광을 재현하는 것과 아울러 과거 울릉도 도항 사실을 부각하려는 분명한 목적과 의도를 들어내려 했기 때문이다.

당시의 안용복에 대한 『죽도고』의 인식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이들은 안용복을 납치하면서 그저 異国船, 異国人으로 기록했다. 이들은 죽도(울릉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겐로쿠 5년(1692년) 무라카와 이치베가 죽도에 갔을 때 처음으로 조선인을 만난 것 같다. 『죽도고』의 ‘조선인이 처음 竹島 渡来’편을 보면⁴³⁾

...배를 몰아 하마다포를 향해 가니 해변가에 이국선(異船) 2척이 보였는데..... 異国人 두 사람이 해변에 있었는데 이들도 작은 배를 타고 우리 배쪽으로 오다가 지나쳐가려 하였으므로, 이를 불러 세워서 예의 두 사람을 억지로 우리 배에(押乘) 태우고서 어느나라에서 왔느냐고 물으니 그중 한사람이 통역이었는데(訳者) 말하기를.....통역이 설명하여 말하길(訳者陳申)...왕의 명령을 받아 3년에 한 번 그 섬으로 가서 전복을 잡아 바쳐왔다. 올 봄에도 그 섬으로 가고자.....통역을 책망하니(訳者責問) 외국인이 답변하기를(唐人答申)...

라고 하여 ‘訳者’, ‘唐人’, ‘外国人’, ‘異国人’ 등을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이것은 통역을 직역으로 표현한 것이 아니라 일본말을 할 줄 알아서 구별하기 위해 통역(訳者)로 기록한 것이며, 신분과 직역에 해당하는 명확한 기준을 적용한 것은 아니었다. 현실적으로 죽도에서 어업을 하면서 외국인과 충돌할 일은 없으며, 통역을 대동하면서 고기잡이하는 경우가 일상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들이 상행위를 한다면 문제는 다르다. 단순한 고기잡이가 아니라 잠상 즉 외국인과의 밀무역에 위한 것이라면 통역은 반드시 필요한 존재이다. 안용복이 통역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사실은 아마도 안용복의 배가 상선이었을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고기잡이를 가장한 밀무역선을 운영한 것이라면 이

43)정영미 역(2010), 『죽도고(상)·(하)』, 205-207쪽.

해할 수 있는 문제이다. ‘訳者’, ‘唐人’, ‘外国人’, ‘異国人’을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점도 눈여겨 볼만하다.

이러한 시각에서 안용복이 납치된 상황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자. 겐로쿠 6년(1693)의 안용복은 단순하게 조선인으로 기록되어 있다. 제목인 ‘오야의 선원들이 조선인을 잡아오다’에서 알 수 있듯이 안용복은 그저 조선인이었다.

...그런데 그 해도 조선인들이 도래했을지도(朝鮮人共渡來) 모르므로.....우리 배 보다 먼저 朝鮮인이 도래한 것이므로...임시로 만든 헛간(움막집?) 안에 있던 외국인 한 사람(唐人)과 만났는데....말이 전혀 통하지 않았다.....다이텐구라는 쪽으로 돌아 갔더니, 외국인(唐人) 10명 정도가 일을 하고 있기에 가까이 다가갔는데, 그 중에 통역이 있어서(其中訳者).....통역(訳)이 말하길, ‘내가 사는 곳은 조선국이며 경상도 동래현 사람으로서 안평샤라고 <또는 안희산, 안평치우라고 쓴다. 어떻게 쓰는 것이 바른가 하면, 그 나라 사람에게는 안씨 성이 많다.’ 안 은 아마 성일 것이며, 힌샤와 히산은 무관의 명칭으로 비장의 전음일 것이다. 또 헨치우 라는 것은 이름일 것이다. 원래 그 때의 異客은 시종붓을 잡지 않았기 때문에 본래의 이름은 전해지지 않는데 진짜 그가 써서 남긴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일까. 그 실정은 알기 힘들다고 한다>. 나이는 42세이다. 이자는 울산사람으로 도라해라고 한다, 나이는 34세이다. 올 봄에 산카이(三界)의 샤쿠한으로부터 전복을 따바치라는 지시가 있었는데.... 작년에 조선인들에게.....이대로 내버려 두면 결국엔 반드시 그들에게 우리 영지를 약탈당할 것이다. 이 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이 일에 대해 위에 자세히 말씀드리고, 막부의 결정을 기다리자’는데 의견이 모아져...이번에 조선인을 억지로 끌고 온(押誘引)異客을 데리고 오라고 해서 그 곳의 지방관의 입회하에 심문하고 구서를 작성하였는데, 오야의 선장들에게도 그 끝에 도장을 찍으라는 말이 있었으나, 그것은 강경히 거절했다고 한다.⁴⁴⁾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조선인’, ‘당인’, ‘이객’, ‘통역’으로서의 안용복의 존재이다. 안용복은 왜 다양한 신분으로 인식되고 기록 되었을까? 그리고 안용복은 무리 중 유일하게 통역의 일만을 했을까? 단순하게 일본어를 해독하여 통역이하고 불렀던 것일까?

안용복이 ‘안평샤’, ‘안희산’, ‘안평치우’, ‘무관’, ‘비장’, ‘헨치우’등 다양하게 불리우고 있는 점도 눈여겨 볼 대목이다. 사람은 한 사람인데 왜 이처럼 다양

44) 오야의 선장들이 심문조사서에 서명하지 않은 이유는 자신들의 일이 정당하지 못했기 때문이고, 죽도에서의 일들이 다소 불법적인 일이었다고 이해된다. 아니면 에도막부에 대한 잘못된 일에 대한(도해면허의 어업확보과정이나 독점하게 된 경위, 막부가 잘 모르는 속주 주장 등의 일) 자인되는 일이 발생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을 것이다.

한 지칭과 신분적 용어들이 등장하였을까? 그리고 안용복(異客)은 왜 붓을 잡지 않았을까? 일본어를 쓸 줄 몰랐을까?

결과적으로 안용복은 분명 고기 잡는 어부만은 아니었음은 분명해 진다. 일본말을 할 줄 알았고, 또 필담을 통해 상호간 의견을 교환하려 했음도 분명한 사실이다. 그리고 안용복은 무관이며 비장이었고, 무리의 책임자이기도 했다. 윤슈 관청은 조사를 일단락 짓고 안용복에게 술과 안주를 보내 예우를 한 점에서도 안용복은 단순 어부나 천민이 아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안용복이 노비일수가 없는 이유가 여기에 분명히 있다.

그러므로 안용복은 주눅들지 않고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은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이러한 태도에 대해 일본인들의 입장에서 감당하기 어려웠을 것이고, 급기야 광폭한 인물로 기록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전부터 안평사가 猛性強暴한 자라는 말이 있었다’는 기록은 이미 안용복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다. 그런데 안용복의 광폭한 행위가 구체적으로는 제시되지 않고 있다.⁴⁵⁾

결국 안용복의 존재와 실체는 왜곡되어 기록되었다. 이러한 왜곡은 안용복의 호패기록에서 절정에 이르게 된다.

조선인 두 사람의 바지 허리춤에 작은 패가 달려 있기에 무엇이나고 물어 보았더니, 안평사가 대답하길, 우리나라(吾邦)에서는 이 패 없이는 살기 힘들다. 그래서 은 40목씩의 세금을 내고 받았다 고 한다.

안평사 요패 앞면

東萊

私奴 用卜 年三十三 長四尺一寸 얼굴은 검고 수염이 났다. 상처없음.

主京居吳忠秋

同裏面

庚午 釜山佐自川一里第十四統三戶

이 호패는 안용복의 실체를 밝혀주는 결정적인 단서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신빙성이 떨어진다. 우선 오카지마 자신이 ‘지금 생각건대 이 패의 글자를 베껴 쓸 때 오류가 있었을 것이다. 후일 식자에게 물어보아 밝혀야 한다’라고 하여 부정확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45) 정영미 역(2010), 『죽도고(상)·(하)』, 227쪽.

조선에서는 호패를 발급하면서 은 40목의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안용복과 오카지마는 무슨 이유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안용복의 존재를 숨기려 했다. 안용복도 자신의 신분이 적나라하게 노출되는 것을 꺼리고 있다. 안용복은 죽도(울릉도)로 가면서, 일본으로 납치되면서 자신의 존재를 숨기기 위해 위조된 요패를 가져갔을 가능성을 상정할 수 있다. 요패의 가치를 지나치게 높게 책정한 것도 이와 관련 있을 것이다. 은 40목의 거금을 강조함으로써 일본인에게 자신이 소지한 요패의 신빙성을 높이고, 결과적으로 위조요패가 아님을 강조하려 한 것이다.

오카지마가 오류가 있었다고 진술한 것도 자료의 부족보다는 후세 즉 죽도(울릉도)가 일본 속도라는 주장을 유리하게 전개하기 위한 궁여지책이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것은 안용복의 호패가 아닐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하겠다. 나가사키 진술에서 나이가 차이나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아마도 돗토리 조사내용이 쓰시마의 외교적 기록에 참고가 되었을 것이다. 그래서 『죽도기사』는 이나바에서의 나이와 나가사키에서의 나이 차이를 알았던 것이다. 쓰시마가 보는 안용복과 돗토리가 이해한 안용복은 이런 점에서 차별이 있었다. 쓰시마의 안용복과 돗토리의 안용복은 아주 미묘하게 다른 사람으로 각인되었다.

일개 통역이었던 안용복은 1696년이 되면 그 격이 높아져 安同知로 변화한다. 무명의 통역이 아니라 관료 그것도 당상관의 신분을 가진 존재, 조선 정부가 인정하는 공식적인 외교관의 지위를 가진 신분으로 인식되고 기록되었다. 이때 안용복은 송사를 위해 돗토리 번으로 돌아온 것이며, 과거 납치되었던 시절과는 분명 다른 모습이다. 당시 안용복을 묘사한 기록을 살펴보면⁴⁶⁾

...겐로쿠 9년(1696) 우리 번 아오야 포구로 온 安同知의 배도 다케시마에서 오키국을 거쳐 온 것이었다....마쓰에의 城下에는 예전부터 표류객을 위한 관사가 마련되어 있었고 조선어 통역을 두었다고 한다.

라고 하여 불과 3년 전의 통역이며 어부인 안용복을 조선의 관료로 대우했다. 그것도 城下로 정중하게 모시고, 조선어 통역의 대기문제를 언급하기까지 했다. 이것은 안용복이 어부나 통역으로서의 개인이 아니라 조선정부의 대표자 내지는 대리인의 자격으로 예우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3년 전 무뢰한으로 인식하던 것과 비교하면 격세지감을 느끼기에 충분하다.

이제 안용복은 단순한 개인의 처지가 아니었다. 조선을 대표하는 通使로 변

46) 정영미 역(2010), 『죽도고(상)·(하)』, 137쪽.

하였다. ‘조선국이 우리 번에 사신(通使)을 보내다’⁴⁷⁾를 보면 조선이 안용복을 사신으로 파견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3년 전 통역이었던, 광폭한 어부였던 안용복을 이들이 몰라본다는 것 자체가 이해할 수 없지만, 1696년을 기점으로 일본에서의 안용복의 신분과 지위는 격상된 것이 분명하다. 안용복을 바라보는 입장의 변화가 있었던 것이다.

겐로쿠 9년(1696) 6월 4일 호키국 아카사키 앞 바다에 조선국 배가 들어왔다는 보고가 있었다. 또 그보다 앞서 오키국 다이칸(代官)인 고토 가쿠자에몽의 테다이(手代)들이 보고하길, 5월 20일 조선 배 한척이 들어왔기 때문에 오게 된 경위를 자세히 물었더니, 이번에 그 나라 배 32척이 다케시마에 도해했는데 그 중 한척이 호키국에 소송할 것이 있어 왔다고 한다는 보고가 있었으므로 필시 그 배일 거라고 하여 가 보라고 하여.....異客....異客에게 다케시마 일 때문에 왔느냐고 물어 보았으나 통역이 없었으므로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었기 때문에....이에 유학자 쓰지 곤인에게 필담으로 소통하라는 명이 떨어져 그가 아오야로 가서 선장 안동지와<안은 성, 동지는 관명, 우리 나라에서 스하라 미치자네 경을 간 승상이라고 칭하는 것과 같다> 다른<이진사 위와 같음> 한 명을 센넨지로 초청하여 대담하게 되었고, 그러면 다케시마 일 때문에 사신을 보내 온 것인지에 대한 것은 명백치 않은 상태에서 끝났다고 한다.....호위하여 이객을 돛토리 정회소로 보내고.....그런데 막부에서 그 이객을 상륙시키지 말고 배에 그대로 두라고 한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일본말을 잘 하는 안용복이 통역의 역할을 하지 않은 이유가 바로 신분의 변화였다. 이제 그는 조선을 대표하는 通使 곧 사신이다. 사신은 사신으로서의 격을 지켜야 하며, 공식적인 외교에서 통역을 두는 것이 관례이다. 그는 의도적으로 일본말을 하지 않았고, 공식적인 회담형식을 요구한 것이다. 필담으로 의견을 교환한 것은 이러한 외교적 의전을 고려한 행위였다. 돛토리 번도 이제 는 과거의 안용복을 넘어 사신으로서의 예우를 하려했다.

일본에서의 안용복에 대한 인식의 변화는 쓰시마의 경우에서와 같은 궤적을 갖고 있다. 이러한 이해는 막부의 태도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죽도기사』의 기록과 유사하지만, 『죽도고』도 막부의 태도가 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⁴⁸⁾ 막부는 쓰시마에 명령을 내려 통역을 파견하게 하였고, 원하는 것은 나가사키로 보내게 했다. 이와 같이 외국인의 소송을 공식루트를 통해 해결하려는 모습에서도 안용복에 대한 예우의 변화를 읽을 수 있다.

47) 정영미 역(2010), 『죽도고(상)·(하)』, 243쪽.

48) 정영미 역(2010), 『죽도고(상)·(하)』, 249쪽.

막부는 평화적 교섭을 원했다. 그래서 ‘온화한 말투로 설득하고’ 그것이 실패하면 돌아가게 하였다. 막부는 새로운 조선과의 관계 설정을 원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것은 쓰시마의 존재와 정치적 역할을 유지하겠다는 의지였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기록자의 고백이다. 그는 분명히 ‘지금은 이 일의 종말을 상세히 알지 못한다. 후일 박학다식한 군자에게 물어 내용을 보충하기 바란다’고 하여 본인의 한계를 분명하게 적시했다. 오카지마는 자신의 기록과 해석이 다소 주관적이라는 것을 인정한 것이다. 무엇보다도 돗토리번이나 오야, 무라야마 가문에 불리하게 기술할 수 없는 입장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던 한계를 극복할 수 없었던 것이다. 이것이 바로 『죽도고』 내용의 한계, 신빙성의 문제와 맥락을 함께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안용복은 결코 사노이거나 평범한 어부는 아니었다는 사실이다. 안용복 일행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기록하여 두었기 때문이다.⁴⁹⁾ ‘三品堂上臣 安同知’, ‘金烏僧將 积氏 憲判事’, ‘進士軍官 李裨將, 金裨將’ 등의 기록은 안용복이 결코 사노가 아님을 보여준다. 이제 안용복은 3품당상관 통사로 이해되고, 그것이 사실적으로 기록되었던 것이다.

안동지는 결국 소송인의 범주를 넘어 ‘朝欝兩島監稅將’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쓰시마에 온 것이다. 함께 온 11명은 일종의 사절단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안용복은 조선에서는 사칭한 인물이 될지는 모르지만 쓰시마에서는 적어도 통신사절단으로서의 위엄과 면모를 보여주었다. 오카지마의 기록은 이런 점에서 사실여부와 합치되는 점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안용복은 사노, 비장, 군관의 칭호보다는 오히려 당상관, 동지, 조울양도감세장이라는 직책과 신분이 더 잘 어울릴 수 있다. 그는 죽도의 어장을 확보하여 조선 연안인들의 어업권을 확보하고, 한편으로는 조선과 이나바, 조선과 쓰시마의 중계무역권 내지는 밀무역권의 확보를 위해 도해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안용복의 밀무역 활동을 가능하게 한 조선 내 배경을 밝힐 수 있다면 안용복의 일본 기록에 대한 사실여부를 명확하게 밝힐 수 있을 것이다.

4. 맺음말

안용복은 1693년(숙종 19년) 바람처럼 왔다가 1696년(숙종 22년) 연기처럼 사라진 신비의 인물이다. 그의 우리에게 남긴 업적은 대단한 것이지만, 우리는

49) 정영미 역(2010), 『죽도고(상)·(하)』, 253-254쪽.

그의 출생과 성장과정, 그가 살았던 삶의 궤적을 추적할 만한 기록을 가지고 있지 않다. 조선인으로 태어나 조선에서 살았지만 그가 살았던 흔적을 조선에서 찾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이 때문에 안용복의 활동을 재조명하는 일은 지난하다.

안용복은 조선인이지만 그의 행적으로 인해 일본과 조선간 외교적 교섭이 있었다. 일본측이 죽도(울릉도)를 자신의 영역으로 주장하였지만, 결국 조선의 영토로 인정하면서 분쟁이 종식되었다. 이 과정에서 안용복의 행적이 부상되었고, 그의 울릉도(독도) 영유권 확인 활동은 주로 일본에서 일어났다. 다행스러운 것은 일본이 안용복의 행적과 관련된 기록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안용복은 한번은 납치되어 강제로 끌려가고, 한번은 자발적으로 일본에 갔다. 그는 돗토리(이나바, 호키), 나가사키, 쓰시마를 경유하여 부산으로 송환되어 처벌되었고, 울릉도를 거쳐 양양으로 돌아와서는 귀양길에 올랐다.

안용복의 일본 행적은 진실여부와 상관없이 일본이 기록하였다.⁵⁰⁾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죽도기사』와 『죽도고』이며, 집필과정에서 사실의 취사선택이 필연적으로 작용하였다. 그래서 일본이 기록하고, 그리고 기억하는 조선인 안용복의 인물을 복원하기 위해 일본의 자료를 있는 그대로 분석했다. 안용복이 일본에서 무슨 일을 하였고, 울릉도와 독도에 대해 어떻게 진술하였는가를 염두에 두면서 일본인들이 인식한 안용복의 실체를 살펴 보았다. 자료에 나타난 기록을 중심으로 편견 없이 이해하려 했다. 그래서 문헌의 기록만을 검토하였고, 종래의 연구시각이나 연구 성과는 제한적으로 반영했다. 이 글의 일차적 한계는 여기에 있다.

한국은 안용복을 영웅시하는 경향이 강하며, 일본은 안용복의 진술을 부정하고 있다. 독도문제의 해결방안의 하나는 한·일간 역사인식의 괴리가 극심한 안용복의 이해와 평가의 공통성을 확보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 안용복 행적의 사실검증이 필요하며, 당시에 일본이 인식한 안용복의 실체를 구명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런 인식을 전제로 일본이 기록한 안용복을 살펴보고자 한 것이었다.

일본이 기록하고 이해한 안용복은 고정적인 것은 아니었다. 시기에 따라, 지역에 따라, 외교적 해결점에 따라 그의 존재는 다양하게 인식되고 기록되었다. 『죽도기사』의 경우 ‘조선인’, ‘어부’, ‘각별한 존재’, ‘무역인’, ‘상매’, ‘소송인’, ‘불

50) 일본측 자료의 안용복 관련 내용에 대한 신뢰성은 그다지 높지 않다고 이미 지적되고 있다. 일본측은 처음부터 안용복 일행을 범죄인으로 취급하여 자의적인 내용만을 진술서에 기술하였고, 최초의 구두질술서와 동일한 진술만을 반복하여 기재하였다는 것이다. 박지영(2014), 『죽도기사』에서 새롭게 발견된 안용복의 활동사항, 『안용복활동의 재조명』 학술세미나, 경상북도 독도사료연구회.

모’ 등 다양하였고, 『죽도고』에서는 ‘訳人’, ‘異客’, ‘異国人’, ‘朝鮮人’ ‘安同知’, ‘訳者’, ‘通使’, ‘三品堂上官’, ‘朝鬱兩島監稅將’ 등 다양하게 기록하고 있다. 안용복이 울릉도에 도해한 목적도 ‘전복과 미역’, ‘고기잡이’, ‘개인적 돈벌이’, ‘밀무역’ 등 다양하였다. 안용복은 분명 한사람인데 그의 신분과 인물을 이처럼 다양하게 기록한 이유가 무엇일까. 일본이 기록한 안용복의 실체를 구체화할 필요가 여기에 있다.

결론적으로 안용복은 ‘사노 용복’, ‘오충추의 사노’로 동래를 거점으로 한 역관이거나 부상대고였다는 한정적인 인식의 틀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그는 안씨 성을 가지고 있으며, 비장이었고, 이와 관련하여 일본은 다양한 신분으로 기록하여 혼돈을 주고 있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보면 안용복은 분명 노비는 아니었다. 그의 존재는 어부이면서 무역인이었고, 불모이면서 통사의 역할도 했다. 아니면 울릉도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파견된 비장, 즉 수령으로부터 특수임무를 부여받은 자일수도 있다. 그리고 3품당상관으로 ‘조울양도감세장’의 직책을 가진 자이기도 했다. 이와 같이 다양한 각도에서 천착되어 안용복의 실체를 파악해야 할 것이지만, 상업행위, 지방관의 민정 수행과의 관련성은 벗어나기 어려울 것 같다.

【参考文献】

『속중실록』

송병기(2007), 『울릉도와 독도』(개정판), 단국대출판부.

경상북도 독도사료연구회, 정영미 역(2010), 『죽도고(상)·(하)』, 경상북도.

경상북도 독도사료연구회(2010), 「2010 경상북도 독도사료연구회 연구보고서」, 경상북도.

권오엽/오오니시 토시테루 편역주(2011), 『죽도기사』, 한국학술정보(주).

권오엽/오오니시 토시테루(2011), 『죽도도해유래기발서공(상)·(하)』, 한국학술정보(주).

오오니시 토시테루 저 권정 역(2011), 『안용복과 원록각서』, 한국학술정보(주).

경상북도 독도사료연구회(2012), 「2011년 경상북도 독도사료연구회 연구보고서」,
경상북도·(재)안용복재단.

경상북도 독도사료연구회(2013), 『죽도기사1』, 『죽도기사2』, 도서출판 지성인.

권혁성(2013), 『죽도고(상)·(하)』, 인문사.

경상북도 독도사료연구회(2014), 「『안용복 활동의 재조명』 학술세미나 발표문」,
경상북도 독도사료연구회.

김병우(2011), 「안용복 연구현황과 과제」, 『경주사학』34. 경주사학회.

김호동(2009), 「조선 속중조 영토분쟁의 배경과 대응에 관한 검토-안용복 활동의 새로운
검토를 위해」, 『대구사학』94. 대구사학회.

김호동(2010), 「『안용복』관련 자료 분석을 통한 안용복 활동의 복원」, 『2010 경상북도 독도
사료연구회 연구보고서』, 경상북도·(재)안용복재단.

김호동(2012), 「『竹島考』 분석」 『독도영유권확립을 위한 연구』, 영남대 독도연구소.

박지영(2014), 「『죽도기사』에서 새롭게 발견된 안용복의 활동사항」, 『『안용복 활동의 재조
명』 학술세미나』, 경상북도 독도사료연구회.

이준구(2004), 「안용복-어부의 신분, 울릉도·독도 파수꾼」, 『영남일보』(2004.6.22일 연재).

이준구(2005), 「17세기 말 호패·호적이 말하는 울릉도·독도 파수꾼 안용복과 박어둔」,
『조선사연구』14. 조선사연구회.

要 旨

The dispute over possession of Dokdo in Korea and Japan should move on to ascertain historical truths, based on it and seek means of common awareness. Therefore, a clear criteria about fact verification and value judgement should be built and the reality of An Yong-bok should be clarified according to the criteria.

Hitherto the viewpoint of 'Sano' that paid attention to an identity tag the Japanese citizens prescribed, 'Busangdaego' of the status of station house, and 'Jamsang' need to be reviewed. It have been took criticism that the Japanese selected historical materials and facts in the process of documentation and recorded to be subjectively favorable.

The fact that we can assure through Japan's record is that the Japanese did not define a particular status or person but wrote very different according to their purpose. An Yong-bok was a person, but they described as a person with a variety of positions and status. It have to be recognized the fact that An Yong-bok turned out not to be slaves or the criminal, he was Chosun people had commercial ventures and related to civil administration of county magistrate.

キーワード : An Yong-bok(안용복), Dokdo(독도), an identity tag(호패),
An article on Jukdo(죽도기사), A study on Jukdo(죽도고),
a document(기록).

투 고 일 : 2015. 5. 31
심 사 일 : 2015. 6. 13
게재확정일 : 2015. 7. 4